



2월의 기도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1. 세계로 흘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며 고국을 그리워 할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로 퍼져 나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3.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천국가신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총재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 디시이엠이 앞장서 세계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초석되게 하시옵소서.

4.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그들이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이었고, 그의 죽음은 화목의 증거였습니다.

인간은 지위와 돈으로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웃들 간에, 그리고 사회 속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실 때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불가능했듯이 우리도 화평케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교만과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복음을 증거하여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다하는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주봉,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2006년 해외성회

〈일천만 구령 향한 'DCEM 교회성장세미나'〉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은 1978년 동경 히비야공원 내 공회당에서 개최한 목회자 세미나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주 강사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의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일천만 명을 본격적으로 복음화하기 위한 일천만구령운동은 50년이 흐른 2025년에도 오키나와에서 성황리에 대성회를 개최해 성령 복음 선교의 명맥을 계승해 오고 있다. 이러한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일천만구령운동 중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2006 DCEM 교회성장세미나'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DCEM이 주최하고 일본리바이벌동맹



(NRA)과 재일한국기독교선교사협회(KMA), 일본풀가스펠교단의 후원 속에 개최된 조용기 목사 초청 'DCEM 교회성장세미나'는 2006년 9월 19일 동경 신주쿠에 위치한 일본 청년관대홀에서 개최됐다. 본 성회는 조용기 목사의 목회와 교회성장 비결을 배우고자 일본인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일본인 목회자들을 비롯해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목회자, 신학생 등 총 1백 20여 교회, 1천 5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일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도모해 일본 일천만구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2006 교회성장세미나는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의 통역으로 조용기 목사가 설교했고 조 목사는 "일본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절망은

곧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되어 소망찬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목회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희망"임을 역설했다.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세미나에 앞서 순복음동경교회의 소개로 진행된 1부 교회성장세미나는 단일교회로서는 일본 최대교회로 성장한 야마토갈보리채플 오오카와 츠구미치 목사가 세미나를 인도했다. 총 2부로 나뉘어 5시간에 걸쳐 진행된 'DCEM 교회성장세미나'는 당해 개최되었던 '2006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을 통하여 연합된 일본리바이벌연맹을 비롯해 재일한국기독교선교사연합회와 순복음교단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력을 통하여 일본 기독교 부흥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세미나로 기록됐다. 일본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 세미나로 복음의 빛 밭인 일본 일천만구령을 향한 일본교회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한 세미나였던 '2006 DCEM 교회성장세미나'는 일본의 일천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성회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 3:5~8)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1.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다르다’라는 말에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실 때에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십니다. ‘알로스’는 똑같은 것인데 ‘또 다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더라”(요 16:14)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습

보혜사 성령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 (요한복음 16장 7~15절)

니다. 이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마음속에 비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주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거꾸러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꾸짖어 주셔야 우리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순식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고 하셨습니다.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두 번째 오신 보혜사 성령 없이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강한 바람같이 불의 허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대기가 지구를 덮음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3.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부름을 받아돕기 위하여 곁에 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성령께서 돋기 위하여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연약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믿음도 약하고 순종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돋기 위해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면 성령께서 어떠한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또,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기도라면 5분 내지 10분하고 기도하면 그로서 그칩니다.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봇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병 고치는 역사가 그쳤다고 생각하면 중대한 잘못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꼭 같으신 분,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각종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움이 생겨나고, 평안하려고 하는데 불안이 가득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사랑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와 계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자’고 고집하다가 납작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릇대로 충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릇을 준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별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8

하나님이 비취지는 거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습니다. 영(靈)은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하는데, ‘바람’(風)도 헬라어로 ‘프뉴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기온 프뉴마’ 곧 ‘거룩한 바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아이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아 그 마음이 고



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장엄하고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고, 두려움과 공포심마저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느껴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정부패로 흐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비취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욕심이 꽉 들어차서 죄악으로 혼탁해진 그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들어도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옆에 와 계셔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비취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마음의 물이 맑아졌지만 염려근심이 바람때문에 그 마음에 비취는 것이 일렁거리고 찌그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바로 비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기는 알지만 마음이 너무나 요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여 마음이 정결해 되고 젖 펜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아 그 마음이 고



요해지면 하나님에 마음에 비취옵니다.

그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늘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속에 비취오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5: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을 선포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목케 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은 길이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우릴 것입니다.

*영산강하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